

MARKET FUNDAMENTALS

	YOY Chg	Outlook
4.4조 원	▼	▲
Total Volume (KRW)		
29	▲	▬
Total Properties Sold		
4.0%	▬	▲
Office Cap Rate		
436,723	▼	▲
Office Total SQM		
3,246만 원	▼	▬
Office Capital Value (3.3m², Grade A)		

ECONOMIC INDICATORS

	YOY Chg	Outlook
3.7%	▲	▬
South Korea GDP Growth		
3.2%	▲	▬
South Korea CPI Growth		
2.8%	▬	▼
South Korea Unemployment Rate		
4.3%	▲	▬
South Korea 10-Yr Treasury Yield		

Source: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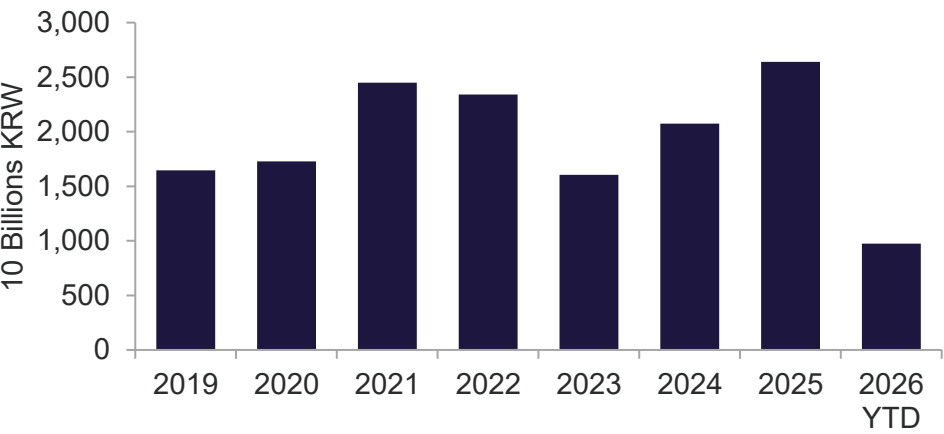
ECONOMIC OVERVIEW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재점화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는 성장과 물가 관리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5월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나란히 상향 조정한 데 이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며 14개월간 이어온 동결 기조를 마감하였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대까지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은 조달금리 부담이 커지며 코어·프라임 자산과 안정적 임차 수익 기반의 자산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접근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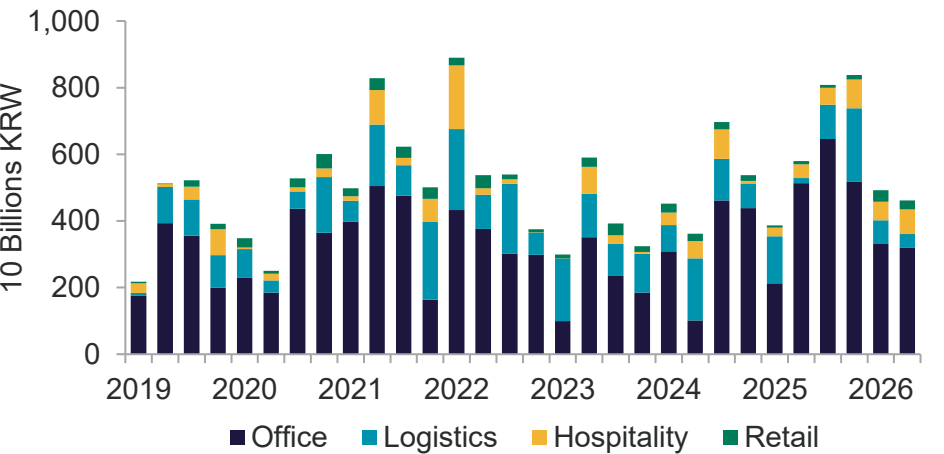
OVERALL CRE TRANSACTIONS

2026년 2분기 일정 면적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총 29건, 거래 총액은 약 4.4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약 11%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누적 거래 금액은 총 9.3조 원으로, 지난해 오피스 시장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 감소하였다. 이번 분기 오피스 부문 거래 규모가 소폭 조정된 가운데, 물류센터와 호텔, 리테일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번 분기 오피스 거래는 총 10건, 약 3.2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권역별로는 CBD에서 5건(약 1.3조 원), YBD에서 1건(약 8,112억 원), GBD에서 1건(약 1,850억 원), 그 외 3건은 기타 권역에서 이루어졌다. 거래 건수는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총 거래 금액은 약 3% 감소하였다. 하나증권빌딩, 을지트윈타워 등 대형 거래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밸류어드 매입과 SI의 사옥 매입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며 투자자 저변이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동기간 물류센터 거래는 총 5건, 약 4,02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대형 자산 거래가 집중되었던 전 분기 대비로는 약 43%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누적 거래 금액은 약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 29% 줄어들었다. 다만 해외 자본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딜이 관측되는 등 상운·코어 자산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동부권 3건, 남부권 1건, 북부권 1건의 분포를 보였다. 호텔 부문에서는 총 4건, 약 5,885억 원 규모의 거래가 완료되었다. 4성급 거래가 중심이 된 가운데, 상반기 누적 거래 금액은 약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1% 늘어나며 전 섹터 중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명동 권역에서 싱가포르계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이 보코 서울 명동을 인수하며 분기 최대 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등 외국계 자본의 서울 도심 호텔 투자가 두드러졌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총 10건, 약 1,837억 원 규모의 거래가 완료되었다. 거래 금액은 전 분기 대비 약 46%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누적 거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강남에서 미주플라자가 분기 최대 규모인 330억 원에 거래되었으며, 성수에서도 3건의 거래가 이어지며 핵심 상권 중심의 투자 흐름이 지속되었다.

TOTAL INVESTMENT VOL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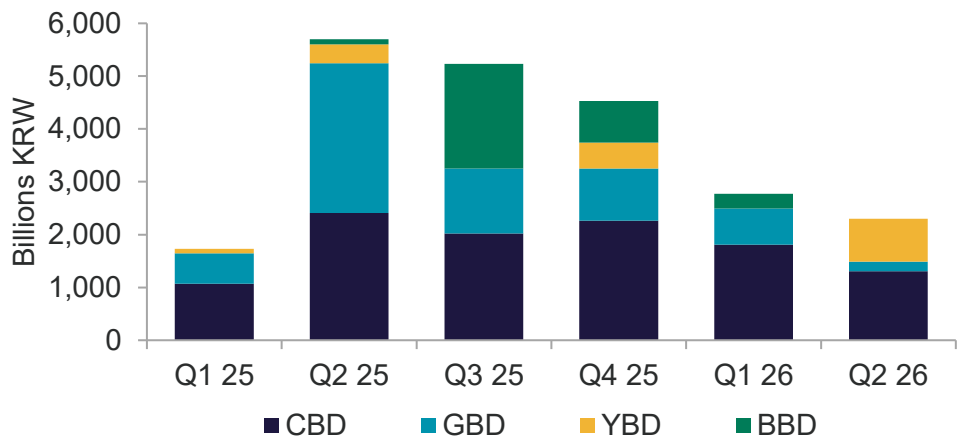


INVESTMENT VOLUME B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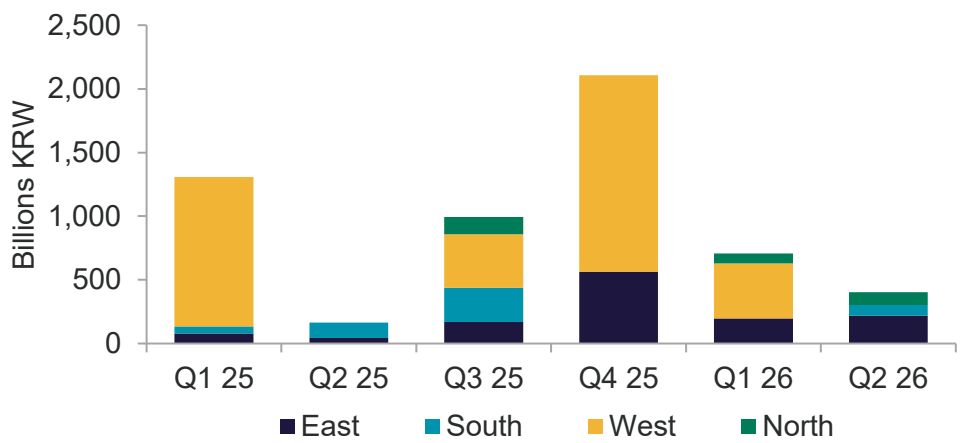


Source: Real Capital Analytics, Cushman & Wakefiel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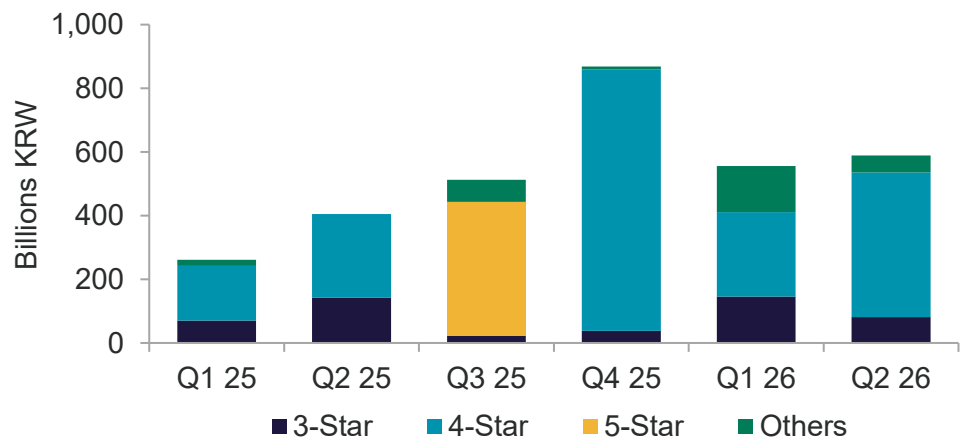
OFFICE INVESTMENT VOLUME BY SUBMARKET



LOGISTICS INVESTMENT VOLUME BY SUBMARKET



HOSPITALITY INVESTMENT VOLUME



Source: Cushman & Wakefield Korea Research

OFFICE: DIVERSIFIED DEAL STRUCTURES AND VALUE-ADD REPOSITIONING

오피스 투자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밸류어드 매입과 세일앤리스백, 사옥 재매입 등 다양한 거래가 나타났다. 하나대체투자운용과 하나증권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코람코더원리츠 소유의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을 8,112억 원에 재매입, 11년 만에 사옥을 되찾았다. 저층부는 리테일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넷마블이 구로에 위치한 지타워를 지베스코자산운용에 매각한 뒤, 5년간 세일앤리스백 형태로 임차 후 과천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반빌딩은 한방병원에서 오피스로, 종로 ABL생명빌딩은 코리빙 시설로 용도를 전환하는 등 자산가치 제고를 위한 리포지셔닝 사례가 다수 관측되었다.

CBD에서는 퍼시픽자산운용이 국민연금 밸류어드 펀드를 활용해 KT투자운용으로부터 을지트윈타워 서관을 약 6,570억 원에 인수하며 이번 분기 최대 규모 거래를 성사시켰다. 한화자산운용은 NH아문디자산운용으로부터 이마트타워를 3,500억 원에 매입하며 한화리츠 최초의 외부 편입 자산으로 확보하였다. 하나자산신탁은 하나손해보험빌딩을 대신자산운용·한화코퍼레이션 컨소시엄에 매각하였으며, 매수 측은 한화솔루션을 SI로 유치해 저층부에 데이터센터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rade A 오피스의 평당 금액은 약 3,246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YBD에서는 하나증권빌딩이 평당 약 3,841만 원에 거래되며 권역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CBD 평당가는 을지트윈타워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격대에 매각돼 2,949만 원에 머물렀다.

LOGISTICS: FOREIGN CAPITAL BROADENS A SELECTIVE QUARTER

수도권 물류센터 투자 시장은 총 5건의 거래가 성사되며 우량 자산 중심의 선별적 투자 기조를 이어갔다. 거래 금액은 대형 자산이 집중되었던 전 분기 대비 약 43% 감소하였으나, 해외 자본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거래 저변은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동부권에서는 그라비티자산운용이 세방물류센터로부터 이천 상봉리 물류센터를 약 700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교직원공제회와 한국투자공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리판자산운용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부터 용인 원진물류 C센타를 827억 원에 매입하였고, 홍콩계 피닉스프라퍼티인베스터스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남부권에서는 DWS자산운용이 미국계 하인즈를 투자자로 유치해 화성 아이봇 풀필먼트센터를 821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북부권에서는 페블스톤자산운용이 남양주 화도물류센터를 1,000억 원에 인수하며 이번 분기 최대 규모 거래를 기록하였다. 이번 분기 상온 물류센터의 평당 평균 거래 금액은 약 545만 원으로, 전 분기(646만 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HOSPITALITY AND RETAIL TRANSACTIONS IN KEY HIGH STREET MARKETS

호텔 시장에서는 외국계 자본의 서울 도심 호텔 인수가 시장을 주도했다. 싱가포르계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은 그라비티자산운용과 TPG안젤로고든으로부터 보코 서울 명동을 약 3,686억 원에 인수하며 이번 분기 최대 규모 거래를 성사시켰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를 859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나인트리 서울 동대문은 개인 투자자가 신한서부티엔드리츠로부터 810억 원에 인수했다. 이 밖에 오라이언자산운용은 골드만삭스를 투자자로 유치해 영등포 유니언호텔을 530억 원에 매입하는 등 관광 수요 회복에 따른 서울 도심 호텔 투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강남과 성수 상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강남 역삼동에서는 미주플라자가 330억 원에 거래되며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성수동 상권에서도 3건의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 분기에 이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었다.

OUTLOOK

- 오피스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밸류어드 및 세일앤리스백 등 다양한 구조의 거래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의 관심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코어·프라임 자산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며 자산별 가격 차별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호가 격차를 좁히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물류센터는 상온·코어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거래 저변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눈높이 차이로 비핵심 자산의 거래 성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 호텔 시장은 관광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계 자본의 서울 도심 호텔 투자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량 자산의 선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 실적이 검증된 자산을 중심으로 리츠 등을 활용한 매입 구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리테일 자산은 강남, 성수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 집중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 규모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SIGNIFICANT SALES

PROPERTY TYPE	PROPERTY NAME	SUBMARKET	BUYER	SELLER	SQM	PURCHASE PRICE (Mn. KRW)	PRICE / UNIT (Mn. KRW/3.3m²)
Office	을지트윈타워 서관	CBD	퍼시픽자산운용	KT투자운용	86,449	657,000	25.12
Office	이마트타워(구 오렌지센터)	CBD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34,171	350,000	33.86
Office	하나손해보험빌딩	CBD	대신자산운용	하나자산신탁	17,098	136,915	26.47
Office	여삼빌딩	GBD	알레르망	여삼	14,256	185,000	42.90
Office	하나증권빌딩	YBD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코람코더원리츠	69,823	811,200	38.41
Office	지타워	Others	지베스코자산운용	넷마블	172,967	697,671	13.33
Logistics	화도물류센터	NORTH	페블스톤자산운용	코레이트자산운용	50,052	100,000	6.60
Logistics	상봉리물류센터	EAST	그래비티자산운용	세방물류센터	43,799	70,000	5.28
Logistics	원진물류C센타	EAST	리판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54,991	82,680	4.97
Hospitality	보코 서울 명동 (4성)	중구	캐피탈랜드투자운용	그래비티자산운용	27,172 (576 Rooms)	368,600	640 (per room)
Hospitality	나인트리 서울 동대문 (3성)	중구	개인	신한서부티엔디리츠	8,871 (219 Rooms)	81,000	370 (per room)
Hospitality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4성)	구로	마스턴투자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18,500 (202 Rooms)	85,900	425 (per room)

Sources: Real Capital Analytics, Cushman & Wakefield Research
Note: office deals over 50bn KRW, logistics assets over 16,500 sqm in Greater Seoul, and hospitality and retail assets located in Seoul’s major areas (including shopping malls)

SUKI KIM
Head of Research, Seoul
Tel: +82 10 7153 0867
Suki.kim@cushwake.com

JIN SO
Research Manager, Seoul
Tel: +82 10 9186 1816
Jin.so@cushwake.com

A CUSHMAN & WAKEFIELD RESEARCH PUBLICATION
Cushman & Wakefield (NYSE: CWK) is a leading global commercial real estate services firm for occupiers and investors with approximately 53,000 employees in over 350 offices and nearly 60 countries. In 2025, the firm reported revenue of \$10.3 billion across its core service lines of Services, Leasing, Capital markets, and Valuation and other. Built around the belief that Better never settles, the firm receives numerous industry and business accolades for its award-winning culture.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www.cushmanwakefield.com.

©2026 Cushman & Wakefield.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this report is gathered from multiple sources believed to be reliable, including reports commissioned by Cushman & Wakefield (“CWK”). This repor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may contain errors or omissions; the report is presented without any warranty or representations as to its accuracy.

Nothing in this report should be construed as an indicator of the future performance of CWK’s securities. You should not purchase or sell securities—of CWK or any other company—based on the views herein. CWK disclaims all liability for securities purchased or sold based on information herein, and by viewing this report, you waive all claims against CWK as well as against CWK’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dvisers and representatives arising out of the accuracy, completeness, adequacy or your use of the information herein.

MARKET FUNDAMENTALS

	YOY Chg	Outlook
4.4T Total Volume (KRW)	▼	▲
29 Total Properties Sold	▲	▬
4.0% Office Cap Rate	▬	▲
436,723 Office Total SQM	▼	▲
32.46 Office Capital Value (3.3m², Grade A)	▼	▬

ECONOMIC INDICATORS

	YOY Chg	Outlook
3.7% South Korea GDP Growth	▲	▬
3.2% South Korea CPI Growth	▲	▬
2.8% South Korea Unemployment Rate	▬	▼
4.3% South Korea 10-Yr Treasury Yield	▲	▬

Source: Statistics Korea, Bank of Korea

ECONOMIC OVERVIEW

Despite robust semiconductor exports, renewed Middle East instability pushed up global oil prices and inflationary pressures in Q2, leaving the Korean economy to balance growth against price stability. After revising its growth and inflation forecasts upward in its May Economic Outlook, the Bank of Korea in July raised the base rate to 2.75% from 2.50%, ending a 14-month hold. With the 10-year government bond yield climbing into the 4% range, rising funding costs are pushing commercial real estate investors toward core and prime assets with stable income, favoring selectivity over broader deployment.

OVERALL CRE TRANSACTIONS

A total of 29 CRE transactions were recorded in Seoul in Q2 2026, with volume reaching approximately KRW4.4 trillion, down 11% q-o-q. Cumulative H1 volume totaled KRW9.3 trillion, down 4% y-o-y. The office sector saw a modest pullback in the quarter, while logistics, hospitality, and retail each posted y-o-y g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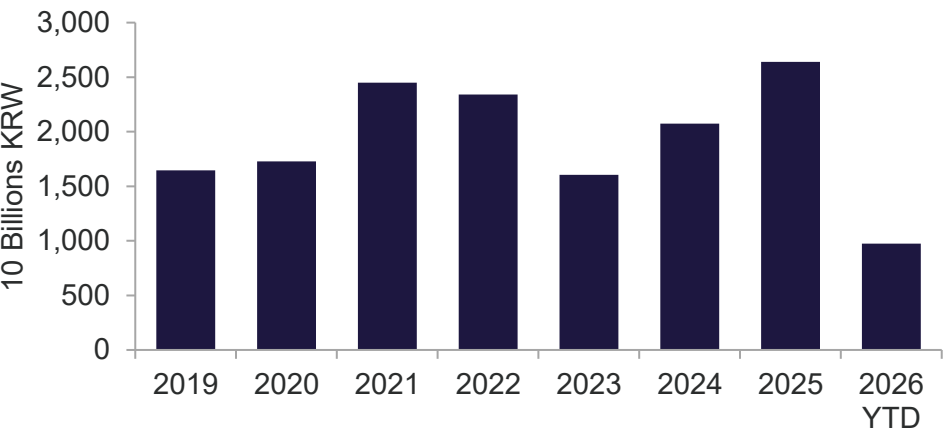
The office sector recorded 10 transactions totaling approximately KRW3.2 trillion. By submarket, the CBD accounted for five deals (KRW1.3 trillion), followed by one each in the YBD (KRW811.2 billion) and GBD (KRW185.0 billion), with three in other districts. Major transactions such as the Hana Securities Building and Eulji Twin Tower anchored the market, with institutional value-add acquisitions — including NPS-backed deals — occurring alongside Strategic Investor purchases for owner-occupation, reflecting a broadening investor base.

The logistics sector recorded five transactions totaling approximately KRW402 billion, down approximately 43% q-o-q against a prior quarter concentrated in large assets. Cumulative H1 volume totaled approximately KRW1.1 trillion, down approximately 29% y-o-y. Selective activity continued to center on ambient-temperature, core assets,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ng. By submarket, three transactions were recorded in the east, one in the south, and one in the no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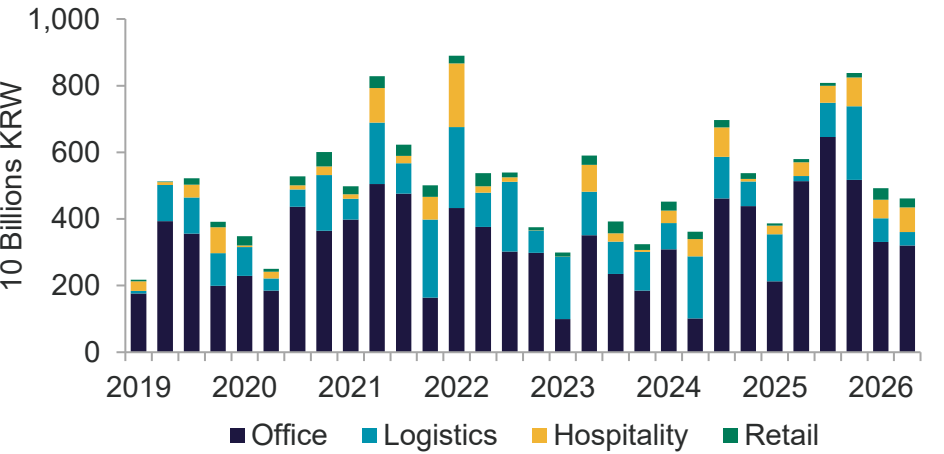
Four hospitality sector assets traded in Q2 for KRW588.5 billion, with 4-star hotels accounting for most activity. Cumulative H1 volume reached approximately KRW1.1 trillion, up 71% y-o-y, the strongest recovery of any sector. Foreign capital was especially active in central Seoul, highlighted by CapitaLand Investment's acquisition of the voco Seoul Myeongdong property.

The retail sector completed 10 transactions totaling KRW183.7 billion, down 46% q-o-q, though cumulative H1 volume more than tripled y-o-y. In Gangnam, Miju Plaza changed hands for KRW33.0 billion, Q2's largest retail deal, while three transactions in Seongsu underscored sustained investor interest in core districts.

TOTAL INVESTMENT VOL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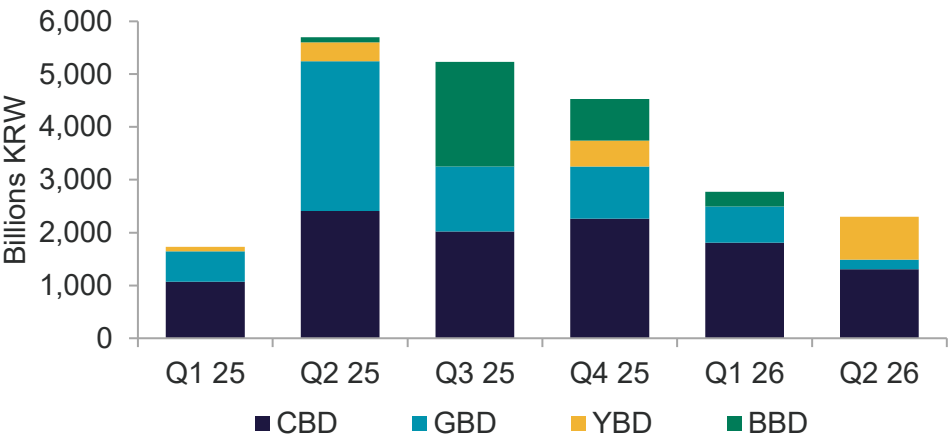


INVESTMENT VOLUME B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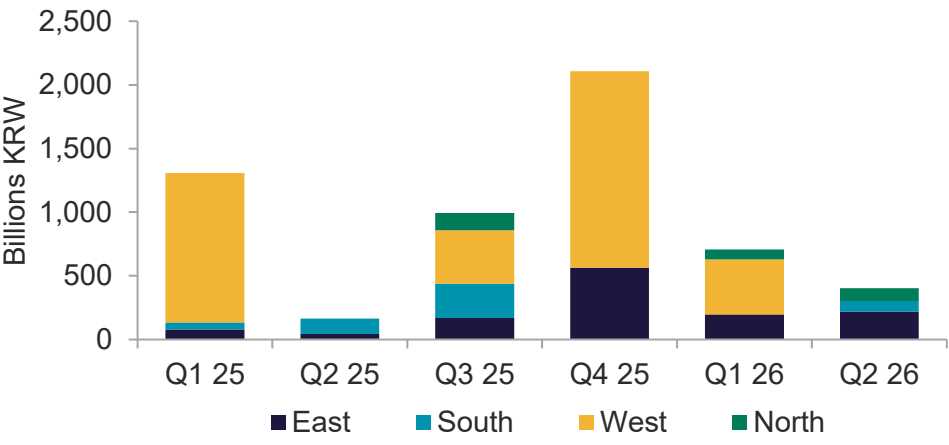


Source: Real Capital Analytics, Cushman & Wakefiel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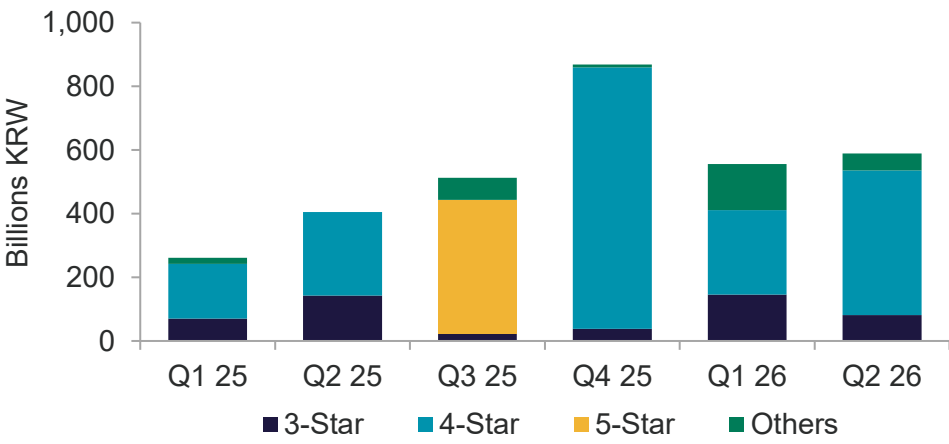
OFFICE INVESTMENT VOLUME BY SUBMARKET



LOGISTICS INVESTMENT VOLUME BY SUBMARKET



HOSPITALITY INVESTMENT VOLUME



Source: Cushman & Wakefield Korea Research

OFFICE: DIVERSIFIED DEAL STRUCTURES AND VALUE-ADD REPOSITIONING

The office market saw a mix of deal structures in Q2, including value-add acquisitions, sale-leasebacks, and corporate buybacks. Hana Alternative Asset Management and Hana Securities acquired the Hana Securities Building from Koramco The One REIT for KRW811.2 billion, restoring ownership after 11 years. Netmarble sold Guro G-Tower to Gvesco Asset Management, leasing back the asset for five years. Repositioning activity was also notable: Doban Building converted from a Korean medicine hospital to office use, and ABL Life Building is being repurposed as co-living space. In the CBD, Pacific Asset Management acquired Eulji Twin Tower West for KRW657.0 billion using an NPS value-add fund, Q2's largest deal. Hanwha Asset Management purchased Emart Tower from NH Amundi for KRW350.0 billion. Hana Asset Trust sold Hana General Insurance Building to a Daishin Asset Management–Hanwha Corporation consortium, which is securing Hanwha Solutions as an SI and evaluating a data center on the lower floors. Grade A office pricing averaged approximately KRW32.46 million per 3.3 sq m, down slightly q-o-q. The Hana Securities Building traded at approximately KRW38.41 million per 3.3 sq m, the YBD's highest, while the CBD held at KRW29.49 million, weighed down by the more conservative Eulji Twin Tower price.

LOGISTICS: FOREIGN CAPITAL BROADENS A SELECTIVE QUARTER

Five transactions closed in the Seoul metropolitan logistics market, sustaining a selective, quality-focused stance. Volume fell approximately 43% q-o-q against a prior quarter concentrated in large assets, though broadening foreign participation pointed to deepening market interest. In the east, Gravity Asset Management acquired the Icheon Sangbong-ri Logistics Center from Sebang Logistics Center for KRW70.0 billion. Ripan Asset Management purchased Yongin Wonjin Logistics Center C for KRW82.7 billion, backed by Hong Kong's Phoenix Property Investors. In the south, DWS Group acquired the Hwaseong iBot Fulfillment Center for KRW82.1 billion with Hines investing. In the north, Pebblestone Asset Management acquired the Namyangju Hwado Logistics Center for KRW100.0 billion, the quarter's largest deal. Ambient-temperature pricing averaged approximately KRW5.45 million per 3.3 sq m, down from KRW6.46 million.

HOSPITALITY AND RETAIL TRANSACTIONS IN KEY HIGH STREET MARKETS

Foreign capital led the hotel market. CapitaLand Investment acquired voco Seoul Myeongdong from Gravity Asset Management and TPG Angelo Gordon for KRW368.6 billion, Q2's largest hospitality deal. Mastern Investment Management purchased Four Points by Sheraton Guro for KRW85.9 billion, while Nine Tree Seoul Dongdaemun sold to a private investor for KRW81.0 billion. Orion Asset Management also acquired Union Hotel in Yeongdeungpo for KRW53.0 billion with Goldman Sachs investing, reflecting sustained hotel investment amid recovering tourism demand. Retail activity centered on Gangnam and Seongsu. Miju Plaza in Yeoksam-dong changed hands for KRW33.0 billion, the quarter's largest retail deal, while three Seongsu transactions extended investor interest from the prior quarter.

OUTLOOK

- The office market is expected to see continued investor caution as funding costs rise on the base rate hike and higher bond yields. Institutional interest should persist into 2H, however, supported by diverse deal structures. As rates tighten, capital is likely to concentrate further in core and prime assets, widening pricing differentiation and prolonging the narrowing of the bid-ask gap.
- In logistics, selective investment in ambient-temperature, core assets is expected to continue, with broadening foreign capital gradually deepening the market. Elevated funding costs and a persistent buyer-seller price gap, however, are likely to slow transactions for non-core assets.
- The hospitality market is expected to see continued foreign investment in Seoul hotels through 2H, supported by recovering tourism demand. With new supply limited, preference for quality assets is expected to persist, alongside a rise in REIT-based acquisitions of assets with a proven operating track record.
- Retail activity is expected to remain concentrated in core high-street districts such as Gangnam and Seongsu, though transaction volume may moderate somewhat as rising rates weigh on investor sentiment.

SIGNIFICANT SALES

PROPERTY TYPE	PROPERTY NAME	SUBMARKET	BUYER	SELLER	SQM	PURCHASE PRICE (Mn. KRW)	PRICE / UNIT (Mn. KRW/3.3m²)
Office	Eulji Twin Tower WEST	CBD	Pacific Asset Management	KT Investment Management	86,449	657,000	25.12
Office	EMart Tower	CBD	Hanwha Asset Management	NH Amundi Asset Management	34,171	350,000	33.86
Office	Hana Insurance Building	CBD	Daishin Asset Management	Hana Asset Trust	17,098	136,915	26.47
Office	Yeosam Building	GBD	Allermann	Yeosam	14,256	185,000	42.90
Office	Hana Securities Building	YBD	Hana Alternative Asset Management	Koramco The One REIT	69,823	811,200	38.41
Office	G-Tower	Others	Gvesco Asset Management	Netmarble	172,967	697,671	13.33
Logistics	Hwado Logistics Center	NORTH	Pebblestone Asset Management	Corate Asset Management	50,052	100,000	6.60
Logistics	Sangbong-ri Logistics Center	EAST	Gravity Asset Management	Sebang Logistics Center	43,799	70,000	5.28
Logistics	Wonjin Logistics Center C	EAST	Ripan Asset Management	Hana Alternative Asset Management	54,991	82,680	4.97
Hospitality	Voco Seoul Myeongdong (4-star)	Jung-gu	CapitaLand Investment	Gravity Asset Management	27,172 (576 Rooms)	368,600	640 (per room)
Hospitality	Nine Tree Seoul Dongdaemun (3-star)	Jung-gu	Private Investor	Shinhan Alpha REIT	8,871 (219 Rooms)	81,000	370 (per room)
Hospitality	Four Points by Sheraton Seoul Guro (4-star)	Guro	Mastern Investment Management	Mirae Asset Management	18,500 (202 Rooms)	85,900	425 (per room)

Sources: Real Capital Analytics, Cushman & Wakefield Research
Note: office deals over 50bn KRW, logistics assets over 16,500 sqm in Greater Seoul, and hospitality and retail assets located in Seoul’s major areas (including shopping malls)

SUKI KIM
Head of Research, Seoul
Tel: +82 10 7153 0867
Suki.kim@cushwake.com

JIN SO
Research Manager, Seoul
Tel: +82 10 9186 1816
Jin.so@cushwake.com

A CUSHMAN & WAKEFIELD RESEARCH PUBLICATION
Cushman & Wakefield (NYSE: CWK) is a leading global commercial real estate services firm for occupiers and investors with approximately 53,000 employees in over 350 offices and nearly 60 countries. In 2025, the firm reported revenue of \$10.3 billion across its core service lines of Services, Leasing, Capital markets, and Valuation and other. Built around the belief that Better never settles, the firm receives numerous industry and business accolades for its award-winning culture.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www.cushmanwakefield.com.

©2026 Cushman & Wakefield.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this report is gathered from multiple sources believed to be reliable, including reports commissioned by Cushman & Wakefield (“CWK”). This repor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may contain errors or omissions; the report is presented without any warranty or representations as to its accuracy.

Nothing in this report should be construed as an indicator of the future performance of CWK’s securities. You should not purchase or sell securities—of CWK or any other company—based on the views herein. CWK disclaims all liability for securities purchased or sold based on information herein, and by viewing this report, you waive all claims against CWK as well as against CWK’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dvisers and representatives arising out of the accuracy, completeness, adequacy or your use of the information herein.